

‘괴물’ 홀란 있기에...

36호골 폭발 EPL 최다골... 맨시티, 에버턴 3-0 꺾고 EPL 우승까지 '1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파크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에버턴에 3-0으로 완승했다.

11연승을 달린 선두 맨시티는 승점 85를 쌓아 이날 브라이턴에 0-3으로 크게 진 2위(승점 81) 아스널과의 격차를 승점 4로 벌렸다.

아스널은 37, 38라운드 두 경기만 남겨뒀고, 맨시티는 브라이턴과의 32라운드 순연 경기 등 세 경기를 더 치른다.

맨시티는 이 세 경기에서 1승만 올려도 자력으로 통산 9번째 1부 리그 우승이자 EPL 3연패를 이룬다.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과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결승에도 올라 트레블(3관왕)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맨시티는 올 시즌 중반까지 아스널에 밀려 2위에 머무르다가 막판 뒷심으로 1위를 탈환했다.

이날 전반 37분 일카이 킨도안의 선제골로 앞서나간 맨시티는 39분 킨도안의 도움에 이은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의 헤더로 2-0으로 달아났다.

올 시즌 리그 36호 골을 기록한 홀란은 자신이 보유한 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다시금 경신했다.

맨시티는 후반 6분 킨도안이 멀티골을 터뜨려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킨도안은 2골 1도움을 올렸다.

페르 라르센과 맨시티 감독은 "여기까지 올라온 건 꿈만 같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리그는 끝나지 않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재역전의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나선 아스널은 후반전 3골을 헌납하며 무너졌다.

후반 6분 만에 홀리오 엔시오에게 실점하며 흔들리더니 후반 41분 데니스 온다프, 추가시간 페르비스 에스투피냐에게 연속 골을 내줬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역전 우승이 가능하지만, 오늘 역전 우승을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우승 불발"의 현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홀란

‘철벽’ 민재 없기에...

김민재 모처럼 휴식에 수비벽 와르르...나폴리, 중위권 몬차에 0-2 완패



김민재

우승을 확정하고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오랜만에 벤치에서 쉬게 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수비벽이 무너지며 중위권의 몬차에 완패했다.

나폴리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몬차의 브리안테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33라운드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확정하고, 홈에서 치른 34라운드 피오렌티나전에서는 '우승 홈 파티'를 벌인 나폴리는 이날 김민재, 흐비차 크바라츠헐리아, 조반니 디로렌초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벤치에 앉힌 채 경기에 나섰다.

김민재는 결국 결장했다.

김민재가 정규리그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해 9월 11일 스페치아와 6라운드 이후 처음이다. 김민재는 이 2경기를 제외하면 늘 선발로 정규리그 경기를 소화했다.

스피드와 대인 마크 능력을 겸비한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 수비진은 몬차의 빠른 공격에 계속 흔들렸다.

전반 18분 몬차 마테오 페시나가 문전에서 나폴리 수비를 피해 오른쪽으로 넘겨준 패스를 다니 모타가 가볍게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40분 잠보 앙귀사가 골 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때린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나폴리는 허술한 수비에 추가 실점했다.

나폴리는 후반 들어 크바라츠헐리아, 디로렌초, 자코모 라스파도리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다음 골도 몬차의 차지였다. 후반 19분 모타의 슈팅을 나폴리 골키퍼 피에를루이지 골리니가 쳐내자 안드레아 페타냐가 원발로 재차 슈팅해 2-0을 만들었다.

앞서 몬차 수비수 아르만도 이초가 나폴리 뒷공간을 겨냥해 넘긴 로빙 침투 패스가 일품이었다.

시즌 4번째 패배를 당한 나폴리의 승점은 그대로 83(26승 5무 4패)에 머물렀다.

몬차는 9위(승점 49)에 자리했다. 하부 리그에서 오래 머물렀으며 올 시즌에야 처음으로 세리에A 무대에 오른 몬차는 나폴리를 상대로 첫 승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5일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체육중 전국조정대회 '금빛 물살'

노효림, 탄금호배 싱글스킬 우승 남중·여중부 더블스킬 2·3위

광주체육중학교 조정 선수들이 금빛 물살을 갈았다.

광주체육중학교에 따르면 노효림이 15일 충주 탄금호배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여자중등부 싱글스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노효림(2년)은 싱글스킬 1000m에서 4분15초 78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노효림은 4분21초 92로 2위를 기록한 충북 칠금중의 황서빈을 6초차로 따돌렸다.

노효림은 지난 대회에서 실격했으나 이번 대회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이수아, 권지영(1년)은 더블스킬에서 4분18초 37로 3위에 올랐다.

남중부 박준호, 박성빈(3년)은 더블스킬 1000m에서 3분26초 3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2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육중학교 이준재 교장은 "항상 훈련프로그램의 현대화와 성별에 맞는 훈련장비를 제공해 효율적인 기능습득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조정부가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2명, 남자 자유형 2명, 여자 자유형 2명 등 핵심 유망주 6명은 서울체고 등에서 심권호 감독과 합숙 훈련을 하며 대회 준비에 나선다.

심권호 감독은 15일 "유소년 선수 지도는 오래전부터 바꿨던 일"이라며 "오랜만에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할 일이 태산 같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권호 감독은 한국 레슬링의 전설이다. 심 감독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만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이 체급이 폐지되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만형 54kg급에 출전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완도 전남체전 마무리...여수시 종합우승

내년 개최지는 영광

완도에서 열린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15일 폐막했다.

전남도체육대회가 15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수시가 4만725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광양시(36,275점)가 준우승했다.

여수시는 2017년 제56회 전남체전 이후 역대 1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육상 3관왕 배건울(19)은 남자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김경희(42)는 역도 -49kg급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작년보다 종합점수와 순위가 향상된 사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완도군(1위), 보성군(2위), 화순군(3위) 선수단이 받았다.

임장상은 완도군(1위), 보성군(2위), 목포시(3위) 선수단이 차지했다.

한편, 내년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는 영광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레슬링 레전드' 심권호 U-17 대표팀 감독에

레슬링 레전드 심권호(51) 감독이 현장에 복귀한다.

심권호 감독은 17세 이하(U-17) 대표팀을 이끌고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세계레슬링연맹 17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심권호 감독은 지난 1월 대한레슬링협회 평이사직을 맡았고, 유소년 선수 발굴이 필요하다는 협회 판단에 따라 최근 U-17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U-17 대표팀 26명을 선발했으며 15일 오후 추가 선발 과정을 거쳐 6명의 핵심 유망주를 꾸릴 예정이다.

심권호 감독은 15일 "유소년 선수 지도는 오래전부터 바꿨던 일"이라며 "오랜만에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할 일이 태산 같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권호 감독은 한국 레슬링의 전설이다. 심 감독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만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이 체급이 폐지되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만형 54kg급에 출전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관	드림, 리바운드
3관	문재인입니다, 스트리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4관	드림
5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바람개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6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9관	문재인입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7관 씨네키움	존 워 4, 유령지구2
8관 씨네키움	스즈메의 문단속, 칠중주: 홍콩 이야기, 리바운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울 댕 러브 III 이충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즐거움 문화산책